

웹기반 영작문교육에서의 동료수정 양상 연구

박은영
(이화여대)

Park, Eun-Young (2004). Peer-revision in web-based English writing.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Teaching*, 10(1), 107-126.

This study is aimed at investigating the aspects of peer correction and responses of English composition in the web-based class.

The participants for this study are students enrolled in the 'preparatory college cyber study center'. Two assignments were given--composition with no feedback and composition followed by student feedback. The participants' feedbacks, responses, and attitudes in peer interaction were analysed. The processes of these two assignments were also compare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students' competitive attitude changed into cooperative attitude when peer-revision was followed. Second, both formal and content feedback were shown in the cyber composition class just as in the classroom composition class, but under no specific guidance, the majority of students' feedbacks were formal feedbacks. Third, some characteristics of web-based writing were found. In the web-based writing class where around a hundred students are enrolled, students' feedbacks were inevitabl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pported the use of students feedback.

[writing/peer-revision/web-based learning, 쓰기/동료수정/웹기반 학습]

I. 서론

영작문교육에서 학습자 동료수정의 필요성과 그 효과에 관하여는 이미 많은 연구들에서 밝힌 바 있다. 동료수정의 긍정적, 부정적인 측면과 효과에 관하여는 많은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국내에서는 대학영작문 수업에서의 동료수정 교수법, 동료수정의 양상에 대한 연구가 나와, 대학영작문 교육에서의 동료수정의 적용을 고무하고 있다(김영서, 2002; 문영인, 2000; 이완기, 1994).

한편, 웹기반 교육에서의 동료수정은, 오프라인 교육에서의 활용을 볼 때, 적용가능성과 필요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일반 대학의 오프라인 교육과 달리, 웹기반 영어교육의 경우, 사이버대학이나 사이버강좌와 같은 순수 웹기반 영어교육 환경에서는 한 반의 수강생이 100명을 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웹기반 교육에서 영작문 동료수정의 필요성은 크다 하겠다.

본 논문에서는 수시모집으로 대학교에 합격한 예비신입생을 대상으로 개설한 미리 가본 대학 사이버 학습센터 영어강좌에서 학습자들의 영어 작문에 대하여 동료수정의 방법을 도입하여 그 양상을 보고자 한다. 본 논문에서는 학습자들이 상호간의 텍스트에 관한 피드백뿐 아니라, 서로 상호작용을 하는 동료들 간의 동료반응(peer response)까지 살펴봄으로써, 학습자들간의 상호작용의 양상들도 보고자 한다. 학습자들에게 동료수정이 없는 일 방향적 작문과제물과, 동료수정을 요구한 과업을 각각 별개로 제시하여, 각 과업을 행하는 데 있어서의 양상과 과정 비교, 피드백의 유형과 반응 양상, 상호작용, 특징 등을 알아보는 것은 앞으로 웹 기반 영어교육에서의 영작문 동료수정의 토대가 되는 연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II. 이론적 배경과 선행연구

1. 웹기반 교육

Relan과 Gillani(1997)는 전통적인 교육과 웹기반 교육의 차이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첫째, 기존의 교육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교실이라는 일정한 공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에, 웹기반 교육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어느 곳에서나 가능하다. 둘째, 웹이 가지고 있는

여러 장점, 가령 멀티미디어 기능과 상호 통신 등을 이용하여 보다 사실적이고 생생한 학습이 가능하다. 셋째, 자유로운 정보 교환을 통하여 협동학습이 가능하며 그 결과 혼자 하는 학습에 비하여 보다 효과적인 학습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다. 다음으로, 웹에 널려있는 많은 자료를 이용하여 학습자들은 다양한 분야를 보다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고, 이 연구의 결과물은 강의 교재로 활용할 수 있다. 웹기반 교육의 또 다른 특징은 웹에 어떤 주제에 대한 내용이 하이퍼텍스트 형태로 주어질 수 있고, 이용자들은 자기의 뜻에 따라 보고 싶은 내용에 선택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는 점이다. 위에 열거한 여러 가지 특징을 가진 웹기반 교육은 기존의 교육과는 다른 새로운 차원의 교육매체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런 특성 덕분에 웹기반 교육은 원거리 교육의 중요한 도구가 되고 있다. 즉 웹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넘어설 수 있는 매체이기 때문에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웹기반 교육을 원거리 교육과 동일시하는 경향이 있고, 실제 많은 연구가 이런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Khan, 1997).

1990년대 이후 Web을 이용한 새로운 교수-학습모형을 개발하여 응용하려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Shotsberger(1997)는 웹기반 교육에서 교사와 학생의 역할을 정립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Butler(1997)는 복합 사례 연구를 통해 웹기반 교육의 효과를 검증해 주었다.

국내에서 웹기반 영어교육에 대한 실험과 그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1990년대 말부터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 중 영작문 지도와 관련하여서는 이용훈(1999)은 인터넷 펜팔을 통한 영작문 지도방안을, 조동완(2001)은 홈페이지를 이용한 웹기반 영작문 수업의 효과를 보고하였다. 위의 연구들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따르는 전통적인 교실 수업을 받을 수 없는 많은 영어 학습자들에게 웹을 통한 이상적인 학습 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상호(2002)는 사이버 공간에 비실시간으로 영작문 카페를 개설하여 기존의 교실 공간에서 충분히 확보할 수 없는 작문 연습 시간과 교수의 피드백 시간을 극대화할 때 학생들의 영작문에 대한 관심과 참여도를 높이고 결과적으로 영작문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음을 보여 주었다.

2. 동료 수정(peer revisions)

동료 수정은 제2언어 또는 외국어 작문에 있어 교육적 지침과 연구주제로서 다소 각광을 받아왔는데, 장점으로 협동학습(collaborative learning)의 일환으로 동료 집단에 의한 수정의 효과에 대한 측면 외에 사회적 상호작용에 의한 구성주의 측면에서의 효과까지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과정 중심 접근법(process-oriented approach)이 주목을 받으면서, 이 접근법의 중요 부분인 동료 수정 활동이 대학 작문 시간을 중심으로 자주 시도되고 있다. 다양한 주장자들은 이 접근법의 다양한 장점들을 들고 있으나(Mittan, 1989), 비판하는 입장에서는 동료수정활동들의 학생 작문에 대한 영향력은 제한점이 있다고 하였고(Connor & Asenavage, 1994), 심지어는 적절한 피드백을 제공해 주지 못하거나 미지근한 태도들 때문에 잠재적으로는 해로운 영향도 있을 수 있다고 하였다(Leki, 1990; Zhang, 1995).

동료 수정의 효과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Kastr(1987)가 동료 수정에 참가한 학생 집단이 교사의 피드백만을 받은 집단보다 작문 유창성(writing fluency)에서 유의미한 증가를 보임을 밝혔다. 그녀는 아울러 동료 수정 집단이 작문 자체에 대해 좀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수업 시간에 동료 수정을 한 집단이 작문 점수에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사실은 Clifford(1981)에 의해서도 확인이 되었다. 그런데, 학생들 간의 동료 수정과 교사로부터의 피드백 중 어떤 것이 더욱 효과가 있는가라는 문제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다. Partridge(1981)는 교사의 피드백이 동료 수정보다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고, Pfeiffer(1981)와 Putz(1970)등은 수정을 여러 번 거친 마지막 작문을 비교해 볼 때, 두 종류의 피드백의 효과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고 발표하였다. ESL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Chaudron(1984)이 동료 수정과 교사로부터의 피드백의 효과를 살펴봤었는데, 그 차이가 역시 유의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haudron은 두 피드백은 효과 면에서 볼 때 차이가 없으므로, 시간에 쫓기는 작문 교사들은 동료 수정을 사용하도록 권장하였다. 이완기(1994)는 교사의 교정은 그 나름대로의 큰 가치가 있지만, 교사가 투자해야 하는 시간과 노력과 교육의 효과를 비교해 보았을 때는 문제가 달라진다고 보면서 교사에게 과중한 부담이 될 뿐 아니라 사교의 참신성, 다양성, 독창성에 있어서 한 사람의 교사보다 여러 학생이 보다 나올 수도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국내에서 상호 교정에 관련된 논문으로는 이완기(1994)가 동료수정의 대학영작문 수업에의 도입의 필요성을 주창하였고, 문영인(2000)은 대학영작

문 수업에서 동료수정의 질적, 양적 분석을 통해 대학생들의 동료수정 양상을 보여주었다. 문영인의 연구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동료 피드백의 질은 전반적으로 유용하고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동료 수정이 우리나라 작문 교실에서도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지도 방법임을 시사하였다.

III. 연구방법

1. 참여자

본 연구의 참여자는 서울 소재 H 대학에 수시모집으로 합격한 학생들 중에서, 2003년 2학기에 9월 15일부터 11월 15일까지 2개월 동안 개설된 '미리 가 본 대학' 예비대학생 사이버 학습센터 영어강좌에 등록한 학생들이다. 이들은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며, 수시입학으로 대학교에서 합격 통보를 받은 상태인 학생들로, 고등학교에 출석은 하고 있으나, 대학교에 이미 합격하여 대학생활을 준비하는 시기의 학습자들이다. 지역은 전국적으로 있으며, 학과는 특별한 제한 없이, 여러 학과가 함께 있으며, 영작문에 대하여 특정한 교수를 별개로 받지 않았다. 본 강좌의 등록생은 139명이지만, 동료수정 활동은 보너스과제 형식으로 출제하였으므로, 수정활동의 분석은 처음 영작문 42편과 수정을 한 62편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수정활동은 여러 명이 복수로 참가할 수 있으므로 수정한 숫자가 본래 영작문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온 것이다.) 그러나 1차 작문(일 방향적 작문)과 'Q & A'의 게시내용은 전원이 올린 내용을 참조하였다. 일반 사이버대학의 학습자들은 연령, 언어능력, 직업 등에서 큰 차이와 다양한 변인이 있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동일 대학에 비슷한 대학수학능력시험 성적으로 합격한 학습자들이므로 학습자들 간의 연령, 언어능력, 직업은 동질한 집단으로 전제된다.

2. 연구질문

본 연구는 순수 웹기반 교육의 영작문의 동료수정 양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학습자 반응을 위한 명시적 교수는 하지 않았다. 이는, Pawan, Paulus, Yalcin & Chang(2003)이 온라인 교육에서 교수자의 명시적인 방향제시나 교수(teaching)가 없는 상태에서 학습자들이 가지는 상호작용의 양상을 살

때보아 협동적인 상호작용을 증진시킬 전략들을 제시한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교수자의 명시적인 방향제시나 교수는 없는 상태에서 학습자들의 자연스러운 상호작용의 양상을 보고자 하였다. 구체적인 연구 질문은 다음과 같다.

- (1) 동료 수정 없이 개인 작문제출만을 요구한 과제에서 학습자들의 태도는 어떤 양상이 나타나는가?
- (2) 학습자들의 동료수정을 유도한 과제에서 학습자들의 수정유형과 상호간의 반응 유형은 어떠한가?
- (3) 웹기반 영작문 운영의 동료반응에서 나타난 학습자들의 반응과 요구사항, 개선할 점은 어떤 것이 있는가?

3. 자료 및 절차

본 연구자는 위의 연구를 위하여 2개월간 진행된 예비대학생 사이버강좌에서 학습자들에게 영어작문 과제물을 내 주었다. 첫 번째 연구 질문을 위하여 '협력학습방'에 주제를 제시하여 자유롭게 글을 작문하여 개인 작문을 제출하도록 두 번의 과제를 제시하였다. 두 번째, 동료수정의 수정유형과 상호간의 반응 유형을 보기 위하여 '과목자료실'에 학습자들이 자신의 글을 올리고, 동료 중의 한 명이 수정을 해 주고, 다시 최종적으로 글을 올리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본 강좌에서 학습자들이 건의사항과 내용이나 기술에 관한 질문사항, 그 외의 교수자나 다른 학습자와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는 게시판은 'Q&A'란이 그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게시판에 올라온 글들과 내용, 상호작용을 함께 조사하면서, 학습자들의 질문유형과 내용 분석과 작문과제 중에 나타난 학습자들의 다양한 의견들을 분석한다.

(1) 1차 작문 (일 방향적 과제)

학생들은 일정 기간 동안 주제를 받아 작문을 하고, 제출 날짜까지 제출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과제는 직업을 선택할 때의 우선적으로 고려할 사항에 대하여 쓰도록 하였다. 두 번째 과제는 대학 생활 중에 꼭 하고 싶은 일을 쓰도록 하였다. 특별히 두 번째 과제의 지시사항에서는 동료와의 수정도 필수적이지는 아니나 고무하였다.

(2) 2차 작문과 동료 수정 과업

학생들은 주제에 대하여 작문을 하고 '과목자료실'에 제출한 이후에, 자유롭게 다른 학생의 동료수정을 받고, 그것을 참조하여 다시 수정본을 올리도록 하였다. 주제는 '내가 생각하는 행복한 삶'이며 한 학생의 올린 글에 대하여는, 여러 명이 복수로 수정을 할 수도 있으며, 이 과정들은 '답변(리플)'의 형식으로 제시되었다.

동료로부터의 피드백은 문법 및 철자, 어휘, 부호의 사용 등 표면적인 형식에 관한 피드백과 내용, 구성 등 의미에 관한 피드백으로 분류되어 빈도수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후, 의미에 관한 피드백은 다시 내용에 따라 세부 범주로 분류되었다. 또한 텍스트를 대상으로 한 피드백과는 별개로 학습자들 상호간의 반응에 대하여도 그 양상을 분석하였다.

(3) Q&A

본래, 학습자들 간의 상호작용, 교수자와의 상호작용 등에 대하여 게시판이 나누어져 있는 것이 일반적이기도 하나, 이 강좌의 프로그램에서는 특별히 다른 게시판이 설정되어 있지 않았다. 따라서 게시판 본래의 의도는 교수자에게 질문하는 곳이나 그 외의 내용들도 게시하는 역할을 하고 있었다. 이 내용들 또한 학습자들의 동료수정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양상들을 보여준다고 판단되어, 조사내용에 포함하였으며, 결과에서 논의하였다.

IV. 연구결과 및 논의

1. 일 방향적 작문과제의 과정에서의 학습자들의 태도의 양상

일 방향적 1차 작문과제를 공지사항으로 제시하고, 학습자들의 과제를 받았다. 이 과정에서 학습자들은 간혹 한글로 느낌을 남길 경우, 먼저 올라온 글들을 보고 두렵거나, 위압감이 느낀다는 등의 반응으로 동료의 작문을 비교의 대상으로 보고 있었다.

(1) 김OO, 09-22, 아래 것 보고 상당히 위축되는....T.T (협력학습방)
50 석OO 2003-09-28 토론방에 애들 어케저리 마니셨다나...나는 한글채우른 눈물나는 데...

학습자들은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비교대상으로 삼고 있었으며 상대적인 위축감을 가지고 있었다. 심지어는 몇 학생이 학과목 수강을 포기까지 하는 원인의 하나가 되었다.

(2) 96 제컴퓨터가 이상한것 같아요. 정OO 2003-10-06 안녕하세요...(중략).. 아..

토론도 그렇고 과제도 그렇고 영어를 외국에서 살다온것만큼 잘하는 친구들이 많은 것 같아서 많이 부담스럽네요_--(토익수강생들은 모두 영어특별전형으로 들어온친구들인것인지!) ... 어떻게든 부딪혀보고 싶지만_-그냥 포기하고 싶은마음도자꾸 생기는데..._-...선배한테 여쭙보니깐,나중에 학점을 포기할수도 있다던데, 정말 그런가요? 아니면 미리 수강신청을 해지시켜야 하는건가요-.별로 안좋게 나온다면 학점포기하는게 나올것 같아서요. (자신이 없어요_-;) 그럼 답변기다릴게요~. 좋은하루 보내세요!

'Q&A'란에서 한 학생이 학점포기에 관한 글을 올렸는데, 다른 학생들의 토론과 상호작용을 볼 수 있었다. 관련된 내용 외에는 생략하였다.

(3) 164 _-; 정OO 2003-10-21 (중략).. 과제는 올라오는 글들을 보면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물론 최선을 다해본 다음에 내리는 결정이라는 가정하에.. 나름대로 영어를 잘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고 많이 부족한 걸 느꼈습니다. ...과제에서 걸리네요. 누군가에게 부탁을 해서 어떻게 제출한 해볼까...라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만, 그렇게 해서는 제 실력이 느는것도 아니고 정직하지 못한거라고 느꼈습니다. ... (생략)

165 음.. 이OO 2003-10-21 저도 ... 저는.. 보통 1학기 수시를 붙는다는 학생들이 하기엔 정말 어이없이..영어를 못해요_- (중략).. 하지만.. 여기글쓰는분들..정말 놀라워요_-;

166 전 조금 다른 생각입니다. 신OO 2003-10-21 (중략) 꼭 영어 잘하는 사람만 좋은 점수 받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구요..

167 .. 이OO 2003-10-21 :(중략);학교에서 일반적인 교과목.. 기껏해야 문제집풀이죠..그것조차 어려워해 겨우 맞춰따라가고 있었던 저로써는..아무리 영어공부를 시작했다한들 영작은 너무 당황스러웠습니다.또 몇몇.. 영어를 한글쓰듯이 하시는분들..(미워요ㅠ_ㅠ)저도 혼자힘으로 해보겠다고 엄청 용은 쓰지만 결국 아직 하나의글도 완성하지 못했습니다..더구나 그 글들을 볼때마다 절망을..느낍니다.. 흑..!><;거기에 이번에는..과제 제출 날짜까지 잘못해서, 결국 영작은 100% 저의 힘으로 하지못했어요.. (과제제출할때..적었어요.. 어쩔수없잖아요 아직은 제 능력이 그것뿐인걸.. 영어를 못하는것도 재밌이지요..

168 상당히 공감이 많이 되는군요 정OO 2003-10-26 (중략) ... 영어도 지지리도 못하는 놈이 영어학부같은데 붙어가지고.. 지금 걱정이 태산같네요. 그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려고 노력중입니다. 가끔 여기서 아직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동기?친구?들의 글을 읽을때면 그냥.. 반갑다고할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이번 겨울방학때 공부 좀 해야할텐데.. 이놈의 귀차니즘이란.._-a

169 강좌해지에 대해서... 정OO 2003-10-20 (중략) 아마 저같이 강좌를 포기할 생각을 하고 있는 학생들이 좀 있을거라고 과제를 받으면서 느꼈습니다. 솔직히 세계화전형을 제외한 나머지 전형으로 들어온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학생들로서는, 학

원이나 과외선생님등 주위의 도움을 받지않고선 하기 어려운 과제(또는 협력학습;) 였다고 봅니다. (적어도 올라오는 글들을 보지 않고서는 많은 부담은 되지 않았을테지만;) 전 쉽게 생각하고 스스로 능력되는데까지 써보려고 했었는데, 올라오는 글들을 보니 포기하고싶은 마음이 생기더군요.-_-;(생략)

위에서 보듯이 학습자들은 서로 상호작용을 통하여 의견을 나누었는데, 강좌에 대하여 계속하기를 꺼려하는 학습자들도 협력학습방에 올라온 동료들의 글을 보면 위축감이 든다는 내용이 공통적으로 반복이 되었다. 이는 경쟁구도로 다른 학습자들의 글을 자신들의 것과 비교하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2. 동료수정과업에서 피드백과 반응 분석과 태도의 특징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합격한 자들로 대부분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다. 이들의 피드백의 종류와 내용을 분석하는 것은, 대학교에 입학하기 전의 자연스러운 상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이는, 전국의 모든 학교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으나, 본 연구의 참여자들은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상위권을 차지하는 대학의 합격생들이며, 이들이 보여주는 약점은, 다른 중상위권의 예비 대학생들 역시 겪을 수 있는 개연성이 있다고 해석된다.

학습자들의 동료 수정 과업에 나타난 특징들을 보면, 먼저 이들은 중 고등학교 때 영작문 교육이 부족했으며, 동료수정에 대하여는 더더군다나 생소하고 익숙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질문들이 나타났다.

(1) 153 친구분께서 고쳐주면 그 다음?? 정OO 2003-10-17 만약에 친구분께서 고쳐줬다면 그 고쳐준 친구는 뭐가 되는 거죠??(좀 웃긴 질문인가???) 서로서로 도우며 하는 겁니까???

이들의 피드백은, 문영인(2000)의 연구에서 분류한 바와 같이, 형식에 관한 피드백과 의미에 관한 피드백으로 분류되었다. 문영인의 연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교실수업 영작문 수업시간에 영작문 교정에 대한 특별한 교수(teaching)이 충분히 있는 이후에 실시된 것으로, 본 연구의 참여자와의 변인으로는 사전에 피드백에 관한 교수의 유무가 될 수 있겠다. 문영인의 연구에서는 동료 수정을 시행하기 전에 피드백을 제공하는 요령과 연습을 위하여 총 12시간의 수업시간이 관련학습에 쓰였으며, 5개의 작문 샘플 시범

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형식과 내용에 관한 피드백을 모두 제공하도록 지시를 받았다. 이 연구에서는 과제지시(instruction)에서는 형식과 내용에 관하여 자유롭게 피드백을 주도록 하였으나, 사전교육을 통한 훈련은 실시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피드백의 종류를 살펴 보면, 형식에 관한 피드백과 의미에 관한 피드백의 빈도수는 <표1>과 같다. 빈도수 면에서 보면 형식에 관한 피드백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차지하고 있다.

표1
동료 수정에 나타난 피드백 유형별 빈도수

유형	빈도수	
	n	%
형식에 관한 피드백	212	90.5%
의미에 관한 피드백	22	9.5%

형식에 관한 피드백을 자세히 보면, 구문변화 49, 동사 22, 표현 19, 단어 18, 어순 12, 접속사 12, 관사 10번 등 그 외에 다양한 문법사항들이 있었고, 띄어쓰기, 문단 서식, 마침표, 따옴표 등의 서식 14, 철자 8 등이 있었다. 의미에 관한 피드백의 종류와 예는 <표2>와 같다.

절대적인 전체 숫자가 적으므로 이 수치로 종류의 순위를 논하는 것이 큰 의미는 없다고 보이지만, 문영인(2000)의 연구에서는, 비평, 제안, 칭찬, 이해 불가능의 순으로 특히 비평에 있어서 다듬기, 논리성, 구성에 관하여 세부적이며 구체적인 피드백이 많이 나왔는데, 본 연구에서 참여자들의 비평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는, 앞에서 밝혔듯이 선수교수의 차이가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표 2
의미에 관한 동료 피드백의 종류

종류	정의	빈도	예
1. 칭찬	상대방의 글에 대한 긍정적 평가	4	“마지막 문장 뜻이 정말 좋네요! 명언.” “서로 돕는 삶에서 행복의 의미를 찾으신 듯..(좋아요~)”
2. 제안	수정 방법의 구체적 제시	3	“맨 마지막의 질문을 살리시려면 ‘내생각은~’으로 시작하기보다는, ‘내 생각을 한마디의 질문으로 말하면~’으로 하시는 게 더 어울릴 듯 하네요..”
3. 비평	다듬기, 논리성, 구성에 대한 비평	2	“이 부분은 짧은 문장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좀더 부드럽게 연결시키는게..”
4. 이해 불가능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의 언급	8	“이 문장은 솔직히 무슨 뜻으로 쓰셨는지 잘 모르겠네요.”
5. 기타	위의 4가지 범주에 속하지 않는 단순한 독자로서의 반응 및 동감	5	“과연 일하는 것도 돈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닐까요?”

한편, 이 연구에서는 학습자들의 텍스트 위주의 피드백뿐 아니라 상호간에 이루어지는 상호작용인 서로의 '반응'(response)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았다. <표3>은 피드백을 준 참여자들의 반응을 분류한 것이다.

자기검양으로 분류한 것은 대부분이 자신의 언어적 능력의 부족함을 표현하면서, 부족하고 잘 못 하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이었으며, 자신의 수정에 대하여 확신이 없어서 오히려 이 수정이 틀리면 다시 알려달라는 내용도 있었다. 교정을 해 주면서, 자신도 배우려는 태도였으며, 이는 학습자들이 체계적으로 영작문을 배우지 않아 언어적인 능력이 실제로 부족한 것이 작용한 면도 있겠고, 거의 모든 글에서 '부족하지만' '잘 못 하지만'을 먼저 쓴 이후에 '고쳐 보겠습니다.'라고 나타난 것은, 한국인들이 기본적으로 자기검양을 먼저 표현하는 문화적 관습 또한 나타났다고 해석될 수 있겠다. 동시에 자신의 수정이 틀렸으면 도리어 고쳐 달라고 하는 것은, 상호협력적인 태도를 나타낸다. 그 외에도 자신의 글도 수정을 부탁한 것이라든가, 이해/확인 요망, 상호협력, 도움 되길 희망하는 반응, 칭찬, 자기협력, 농담, 기타 상호작용을 나타내며, 일 방향적 작문 과제에서 경쟁구도의 양상을 보였던 것에 반하여, 동료수정 과제에서는 상호협력의 구도로 바뀌는 것을 볼 수 있다.

표 3
피드백을 준 학습자들의 반응(response)

종류	빈도	예
자기겸양	39	"잘 모르지만 좀 고쳐봤어요." "제 실력이 너무 안 좋지만 ㅠ 고쳐봤어요."
자신의 글 수정부탁	9	"오히려 제가 틀렸다면 좀 가르쳐 주세요." "글 읽으시는 분들은 제가 고친 것도 제대로 되었는지... ^^ 한번 봐주세요 ^ ~ ^"
도움을 희망	4	"조그마한 도움이나 되셨으면"
확인요망	4	"무시할 건 무시하시고 필요한 것만 바꾸세요"
상호격려	3	"우리모두.. 끝까지 열심히 해요." "다들 A+ 받으시다"
이해요망	2	"틀린거 고친게 틀렸어도 양해해 주세요"
칭찬	2	"너무 잘 쓰셔서 별로 고칠 것이 없네요."
자기격려	2	"성심껏 했습니다"
농담	2	"전OO이라는 이름이 끌려서 수정해 보았습니당... (끌려간다..) 헤헛^^ 녀답이구여"
기타	2	"저기요...;; 마감일... 11월 2일까지인데...; 쿨럭...;; 압튼...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서.. 올립니다...; ^^"

한편, 수정을 부탁하는 학습자 쪽에서도 본인들의 처음 글을 올리거나, 동료의 수정 이후 재수정한 글을 올릴 때에 동료를 향하여 <표4>와 같은 반응들을 보였다. 수정을 부탁하는 학습자들도 다양한 상호작용의 반응을 보였는데, 2차 수정하기 전에 이미 수정해 준 것에 대하여 감사하는 반응이 가장 많았고, 수정을 받기 이전에 글을 올릴 때에는 자기겸양의 반응이 가장 빈번한 반응으로 나왔다. 자기겸양의 반응은 앞에서와 같이, 한국인의 자기를 낮추는 문화와 실제 학습자들의 언어능력의 부족으로 인한 반응으로 해석된다. 이 부분을 살펴보면, 학습자들이 자신의 어려움과 잘 못 쓴 글에 대하여, 1차의 일 방향적 작문과제에 비하여 두려움을 덜 느끼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즉, 일 방향적 작문에서는 다른 사람의 작문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작문이 부족함을 부정적으로 받아들임을 볼 수 있었는데, 수정활동에서는 학습자 스스로 많이 틀린 것을 인정하면서도 따라서 많이 지적해 달라는 긍정적 태도로 변하였다. 많이 틀리면 수정하는 쪽도 더 좋아하지 않겠냐는 내용들도 동료수정과제는 심리적으로도 덜 부담스러운 환경을 학습자들에게 제공해 줄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표 4
수정을 부탁하는 학습자의 반응

종류	빈도	예
감사	21	“감사해요♡ ^^ 우와 빨리 수정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 덕분에 많이 도움 됐어요!” “많이 배웠습니다.” “제 한계를 느낍니다_ _;” “진짜 못 쓰죠?”
자기경양	13	“많이 틀렸을 거예요.” “내용조차 앞뒤가 맞지 않는 듯하지만, 내가 사소한 게 많이 틀리면 여러분의 리폴도 많겠죠;”
수정부탁	13	“마나 지적해 주세요.” “부디 틀린 부분을 콧구멍 꼬집어 주소서.” “이게 맞는 거겠죠?”
질문	5	“그런데요, 같은 뜻으로 쓰이는 영어가 여러 가지 있잖아요_ 그것중에 뭘 선택해야 하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그것도 규칙이 있는 거예요? 큰일났네_ ㅠ_ㅠ;”
자기어려움	4	“이런 구문들은 참 생각해내기 힘들어요” “한계를 느낍니다”
기타	2	“근데 왜 다들 고쳐주는 사람이 없지;;; 글이 넘 이상한가;;; 살려주세요;” “꼬적...꼬적-”

3. 웹기반 수업 영작문 동료수정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

웹기반 교육에서는 웹기반 작문의 특징상 교실수업과 다른 양상이 나타나기도 하였는데, 이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호 사용을 통한 의사소통과 이의 과도한 사용으로 인하여 부호의 무분별한 작문 내의 사용까지 나타났다. 컴퓨터 매개 의사소통에서 이미 일상화된 이모티콘의 사용은 흔하게 나타났는데, 특히 학습자들은 어색함이나 미안함, 당황한 의미를 전달할 때, ‘_ _;’라든가 ‘^^;’와 같은 이모티콘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이는 컴퓨터를 이용한 글쓰기에서 빈번하게 드러나는 특징으로, 의사소통적인 역할들도 논의된 바 있다(이승영, 2001; Park, 2003).

한편, 컴퓨터 작문에서의 이모티콘의 사용으로 인한 여러 부호들의 잦은 사용이 작문에서도 무분별하게 쓰이는 것이 보였는데, 학생들의 한글 글쓰

기에서도 이모티콘에서 흔히 사용되는 세미콜론(;의 잦은 사용이 나타났다. 의사소통의 기능을 하는 이모티콘으로서의 역할이 아니라, 다음의 예와 같이 한글을 이을 때에도 문장이 끝날 때라든가, 마침표나 심지어는 물음표의 위치에 사용하는 것이 빈번히 보였는데, 이는 본래의 세미콜론의 사용법과는 위배되는 것이다. 연구자의 견해로는 이모티콘의 사용은 의사소통전략의 하나로 이해하더라도, 작문 시에 무분별한 부호의 사용은 교사가 지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1) 62 아직 토론글을 읽을렀는데... ;; 꺾OO 2003-09-30 . -.,T;; -0-;;평균 한 단어에 4스펠링으로 잡고 50단어... 한문장에 5~6단어... 그러면 10줄이면!! ;;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2) 146 과제실에있는 중간고사대체용과제의 프린트물이..... 박OO 2003-10-16 .왜 그런건지.... 혹시 아시나요?;;

둘째, 웹기반 교육은, 전적으로 웹기반의 지시사항과 웹 게시판 제출에 의존하므로, 지시사항의 명료함과 효율적인 게시판의 운용이 필요하였다. 지시사항이 불명료할 경우 혼란을 초래하였고, 때로 기술적인 문제로 웹 교육환경에서 학습자들의 컴퓨터 환경과 맞지 않는 부분들이 발생하였다. 특히, 본 강좌에서는 교수와 조교가 로그인 하였을 때는 '과목자료실'로 명시된 게시판의 이름이 학습자가 로그인 하였을 때는 '학습자료실'로 이름이 표기되는 기술적 문제로 혼란이 초래하였다. 이로 인하여 'Q & A'란에 계속 학습자들의 질문이 올라왔는데, 문제를 인지한 한 학생의 답글로 해결될 수 있었다. 그 외에도, 첨부문서 올리기와 첨부문서 열기 등의 기술적인 문제들이 계속하여 질문사항으로 제기되었다. 이 과정에서도 흥미로운 것은, 학습자들 중에서 기술적인 부분들을 잘 아는 학생들이 답변을 해 주고 해결하는 방법을 알려줄 뿐 아니라, 필요한 프로그램을 올려주는 등 학습자들의 활발한 상호작용이 나타났다. 영어작문 수정의 영역뿐 아니라, 전체적인 질문답변 게시판까지도 학습자 상호간의 상호작용을 고무하는 환경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교수자에게나 학습자에게나 서로 도움이 됨이 나타난 것이다.

(3) 77 중간고사대체과제물.. 강OO 2003-10-02 과제물이 .rtf 파일로 올라왔습니다.MS 오피스 가 깔려 있지 않다면word viewer 97을 받아서 깔고 보시면 됩니다. <http://pencils.compuz.com/wd97vwr32.000> 위의 주소를 주소창에 넣고 연결하시면 뷰어를 받을 수 있을겁니다. 제 개인 계정에 올렸으므로...

(4) 92 제 생각에는... 신OO 2003-10-06

지나가던 학생인데요..제가 과제 올려보니까 여기 게시판이 저절로 준비감이 안되더라고요...그니까 복사해서 붙여넣으면 쪽~ 이어서 글이 올라가더라고요.

(5) 98 공지사항에 나와있던데요... 신OO 2003-10-07 제가 알것같은 질문이라 그냥 지나치기 좀 미안해서 답변합니다;;일단 공지사항에 보면 다운 안될 경우... 1. 먼저 인터넷의 상단메뉴, 도구로 간다. 2. 인터넷옵션을 꼭 누른다.3. 상단의 메뉴에서 고급으로 재빨리 간다. 4. 팬밀에서 6번째줄... "URL을 항상 UTF-8로 보냄"을 해제한다. (걱정마세요. 해제해도 컴퓨터는 폭발하지 않습니다.)이렇게 나와있네요.. 업로드된 파일이름이 한글로 되어있어서 그럴거예요..

웹기반 교육이기에 교실수업의 칠판과 모든 매개의 역할을 하는 웹의 역할과 기능이 중요하였다. 예를 들면, 동료수정을 위한 게시판을 위하여, 답글(리플)을 달 경우 기존의 게시판을 사용해야 할 경우에, [원본], [친구수정본1], [친구수정본2], [본인수정본1] 등과 같은 머리말을 달도록 할 경우 더욱 효율적인 운용이 되겠다.

V. 결론

본 논문은 웹기반 교육의 영작문의 동료수정 양상을 연구하는 것으로, 일 방향적 작문 과제와 동료수정 과업에서의 학습자들의 태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수정내용과 반응을 분석하며, 이 과업의 과정에서 나타난 특징들과 개선할 점을 알아보는 데에 목적이 있다. 결과들을 정리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 방향적 작문에서는 학습자들의 태도가 경쟁구도로 나타났던 것에 반하여 상호교정 작문 과제에서는 협력구도로 두드러지게 달라졌다. 처음에 작문과제물을 제시하였을 때, 앞에 올린 몇 명의 학생의 글을 읽은 학생들이 당혹감과 어려움을 표현하였으며, 잘 한 학생들의 글을 읽고 위압감이나 위축감을 표현하는 학생들이 있었다. 이는 심지어는 과목 포기상태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기도 하였다. 이에 반하여, 동료수정 과업에서는 다른 학생들의 작문에 대하여 자신이 수정을 해 줄 대상으로 대하는 태도의 변화가 나타났다. 또한 자신의 글에 대하여도 언어적으로 부족한 면에 대하여 회의적인 태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수정을 바라는 태도로 긍정적으로 바뀌는 것이 나타났다. 즉, 상호간에 협력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어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

둘째, 동료수정과제에서의 피드백과 반응의 분석은 형식상, 의미상의 피드백 유형으로 나타났는데, 교실수업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이 나타났으며, 동료피드백에 관한 선행교수(teaching)가 없는 상태에서 의미에 관한 동료 피드백이 형식에 관한 피드백보다 수적으로 현저하게 적었다. 교실수업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종류의 피드백이 동일하게 보인 것은, 웹기반에서도 동료수정과업이 교실수업의 동료수정과업을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며,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보여줄 수 있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학습자에게 전혀 특별한 교수나 지도를 하지 않은 자연적인 상태에서의 상호작용을 보아서 교수자의 교수로 인한 영향력을 배제하려고 하였는데, 학습자들은 의미보다 형식에 관한 피드백에 치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Lockhart와 Ng(1995)의 연구의 주장과 같이 학습자들이 이전에 작문에 관하여 받은 교육, 작문에 대한 태도 등이 동료수정의 양상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나타내 준다. 이는 한국에서 중 고등학교에서 교육을 받아온 학생들이 자연스럽게 보여주는 상호작용의 양상으로 보이고, 이의 결과는 기존 중고등학교의 교육이나 대학영어교육에 교육적인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본다. 즉, 이는 중고등학교에서나 대학에서나 작문지도에서, 문법 등을 수정하는 형식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의미에 대한 지도와 중요성, 교수가 더욱 요구됨을 보여 줄 수 있었다. 한편, 학습자들의 동료수정과업에서의 협력태도는 'Q & A'에서 서로의 상호작용과 동료수정을 선택적으로 격려했던 1차작문에까지 영향을 끼쳐 학습자들이 상호교정의 활동에 참여함이 나타났다(부록 2).

셋째, 순수 웹기반 영작문 교육의 경우, 모든 것을 웹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오프라인 수업에서 발생하지 않는 특징들이 나타났다. 이는 '쓰기'에 대한 개념이 이전에 종이문서로 된 것을 일컫는 때와 달리 컴퓨터와 인터넷이 보급화 되어, 작문에서 새로운 변화의 양상으로 생각된다. 이 중 하나의 특징으로 학생들은 이모티콘의 이용을 일상적으로 흔하게 하였으며, 특히 어색함이나 미안함, 당황한 의미를 전달하기 위하여 이모티콘을 빈번하게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모티콘에 자주 나오는 부호를 개별적으로 일반 작문에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것은 본래의 작문에서의 부호 사용법과는 위배된다. 이모티콘의 사용은 의사소통전략의 하나로 이해하더라도, 무분별한 부호의 사용은 교사가 지적해 주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순수 웹기반 영작문의 특징으로,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들이 나타났다. 교실수업과 달리, 전적으로 웹기반의 지시사항과 웹 게시판 제출에 의존하기 때문에, 지시사항의 명료화와 효율적인 게시판 운용이 요구된다.

이상에서 본 바와 같이, 본 논문에서는 웹기반 교육에서 일 방향적 작문과 동료수정작문 과업에서의 학습자들의 태도에의 차이점과, 웹기반 교육의 동료수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특징과 제언점에 대하여도 살펴보았다. 서론에서 밝힌 바와 같이, 수강생이 한 학급에 100명이 넘는 웹기반 영어 교육 프로그램의 경우, 학습자 동료교정은 필수불가결한 교수방법이며, 일 방향적 작문과제에서보다 긍정적인 태도와 특징들이 상호작용 측면에서와 과정에서 드러났다. 또한 그 과정에서 발견되는 몇 가지 문제점들과 제언점도 제시되었는데, 웹기반 영어교육에서 위와 같은 점을 토대로 동료수정이 더욱 활발하게 진행되며, 효과적인 동료수정방안을 위하여 더 체계적이며 학습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들과 결과와 과정에 대한 연구, 프로그램들이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영서. (2002). 컴퓨터 중재학습과 영작에 대한 연구, *영어교육연구* 14(2), 253-276.
- 문영인. (2000). 한국 대학 영작문에 나타나는 동료 수정의 성격. *영어교육* 55(1), 119-140.
- 신희재와 권청자. (1998). 인터넷을 통한 효과적인 작문 지도, *멀티언어교육* 1(1), 141-162.
- 이승영. (2001). CMC 의 비언어적 상징표현으로서 이모티콘에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집*, 7(2), 99-111.
- 이완기. (1994). 동료수정에 의한 대학 영작문 교수법, *영어교육* 47, 77-93.
- 이용훈. (1999). 인터넷 펜팔을 통한 영어 쓰기 능력 신장. *한국외국어교육학회 '99여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서울: 한국외국어교육학회.
- 조동완. (2001). 웹기반 영작문 수업. *영어교육* 56(2), 287-307.
- 조인희. (2001). 플랫폼을 이용한 웹기반 영작문 수업의 문제점: 사례연구 1. *멀티언어교육* 4(1), 146-164.
- 한상호. (2002). 사이버 영작 카페를 이용한 대학생 영작문 능력 신장 방안. *외국어교육*, 9(2), 247-272.
- Butler, B. (1997). Using the world wide web to support classroom-based instruction: Conclusions from a multiple-case study. In B. H. Khan (Ed.), *Web-Based Instruction* (pp. 417-423).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Chaudron, C. (1984). The effects of feedback on student's composition

- revisions. *RELC Journal* 15, 1-14.
- Clifford, J. (1981). Composing in stages: The effects of a collaborative pedagogy. *Research in the Teaching of English*, 15, 37-53.
- Connor, U., & Asenavage, K. (1994). Peer response groups in ESL writing classes: How much impact on revision?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3, 257-276.
- Kastra, J. (1987). Effects of peer evaluation on attitudes toward writing fluency of ninth graders, *Journal of Educational Research*, 80, 168-172.
- Khan, B. H. (1997). Web-based instruction (WBI): What is it and why is it? In B. H. Khan (Ed.), *Web-based instruction* (pp. 417-423).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Lee, S.Y. (2000). Teaching writing using a bulletin board on the internet. *English Teaching* 55(3), 171-191.
- Leki, I. (1990). Potential problems with peer responding in ESL writing classes. *CATESOL Journal*, 3, 5-19.
- Lockhart, C., & Ng, P. (1995). Analyzing talk in peer response groups: Stances, functions, and content. *Language Learning*, 45, 605-655.
- Mittan, R. (1989). The peer review process: Harnessing students' communicative power. In D. M. Johnson & D. H. Roen (Eds.), *Richness in writing: Empowering ESL students* (pp. 207-219). New York: Longman.
- Park, E. Y. (2003). Strategies in negotiation of meaning and self-correction in CMC interaction, *Multimedia-Assisted Language Learning*, 6(2), 53-70.
- Patridge, K. (1981). *A comparison of the effectiveness of peer vs. teacher evaluation for helping students of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to improve the quality of their written compositions*. Unpublished master's thesis, University of Hawaii, Manoa.
- Patterson, G. B. (1989). The usefulness of computer-assisted instruction in the teaching of writing skills to students of English as a foreign language in Korea, *용용언어학* 2, 49-67.
- Pawan, F., Paulus, T. M., Yalcin, S., & Chang, C. (2003). Online learning: patterns of engagement and interaction among in-service teachers, *Language Learning & Technology* 7(3),

- 119-140.
- Pfeiffer, J. (1981). *The effects of peer evaluation and personality on writing anxiety and writing performance in college freshme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Lubbock.
- Putz, J. (1970). When the teacher stops teaching-An experiment with freshman English, *College English*, 34, 50-57.
- Relan, A., & Gillani, B. B. (1997). Web-based information and the traditional classroom: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B. H. Khan (Ed.), *Web-Based Instruction* (pp. 41-46).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Sherman, J. (1994). *Feedback Essential writing skills for intermediate students*.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 Shortsbergber, P. G. (1997). Emerging roles for instructors and learners in the web-based instruction classroom. In B. H. Khan (Ed.), *Web-Based Instruction* (pp. 101-106). Englewood Cliffs, NJ: Educational Technology Publications.
- Zhang, S. (1995). Reexamining the affective advantage of peer feedback in the ESL writing class. *Journal of Second Language Writing*, 4, 209-222.

부 록 1

‘과목자료실’ 작문에 게시된 동료 반응의 예

마감기간은 지났지만 그래도 고쳐봅니다-_-;;

Everybody might have considered. What is the real happy life?

It is not easy to get resolution in reply. ->이건 궁금해서 드리는 질문인데 in reply가 답장이란 뜻 빼고 다른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It may be the happiness that before examination student is to pass exam and a hungry man who didn't eat a few days is to eat full for them. ->'시험을 치기 전의 학생'의 뜻으로 쓰인 'before examination student'가 좀 낯선 느낌이 있네요... take an exam등을 적절히 사용해서 바꿔보는것이 좋을듯 싶구요, examination보다는 exam이 더 어울릴것 같네요...(사전에 학생들이 보는 시험은 exam이 더 어울린다고 되어있네요^^) 그리고, didn't eat 다음에 a few days보다는 문맥상 several쪽이 더 어울릴듯 싶네요... 이번 문단은 전체적으로 다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부 록 2

‘협동학습실’ 작문에 게시된 동료 반응의 예

내생각'과제만 영어로 쓰라고 나왔던거 같던데..답변은 영어/한글/타국어 상관없겠지.
 Students singing on the grass, everyone hurrying to get the best seats in the
 class.. that's pretty much what I dreamed of a so called "campus life" when I
 was just a junior.=>요런건 학교홍보테이프 같은데서 많이 볼수 있는거 아냐?ㅋㅋ
 But that's all a thing in the past. Now, it's more like, drunken guys on the
 ground, guys hitting on girls in public and vice versa.

=>글쎄...내가 지금까지 강의들으러 갈때 요런건 한번도 못봤거당??-_-;

I mean, I've read almost every stuff other kids had written, and I was surprised
 to find out that everyone seems to be all excited and all high about the
 upcoming university life. =>오타보인다...excited->excited. 글쎄 난 high 정도로는
 아니지만 약간의 기대감이 있긴 있거든....넌 안그러니? (o)글 전체적으로 잘 쓴거
 같고 정말 솔직한 느낌이 들군. 이제 앞으로 다가올 대학생할 두려워하지 말고 새로
 운 걸 도전한다는 생각으로 시작해봐 ^^ 다 잘 될꺼야! 화팅이다!^-^ 이OO (헐)

예시언어(Examples in): English

적용가능 언어(Applicable Languages): English

적용가능 수준(Applicable Levels): college

박 은 영

이화여대 사범대학 영어교육과

121-750 서울시 서대문구 대현동 11-1

Tel: 011-9893-3369

Email: 20000grace@hanmail.net

Revised in Feb., 2004

Reviewed in March, 2004

Revised version received in April, 2004